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5 Spring Vol.40



## In Schaeffler

page 08 세플러가 만난 사람  
요리연구가 한복선



## For Life

page 40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한 눈에 보는 서양미술사, 필립스 컬렉션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



## To Communicate

page 48 따뜻한 시선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나눔 현장





Cover Caption

이번 '패밀리가 뒹다'에서는  
창원공장 테이퍼베어링 MU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동원 사원 가족이 원동매화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매실 발 가득 봄소식을 전하고 있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발행일 2015년 4월 15일(통권 제40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범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허우두 그래픽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04 일상 속의 세플러  
고속 열차 속 베어링

In Schaeffler

06 세플러, 인생을 걸다  
베어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추억시계

08 세플러가 만난 사람  
세계인의 식탁에 정서(情緒)를 올린다  
요리연구가 한복선

12 세플러, Best of the best  
세플러의 인재를 키운다

14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춘기 딸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수줍은 마음

16 체험 1박2일  
자연이 숨겨둔 선물을 캐는 곳

20 글로벌 세플러  
보고, 먹고, 느끼다  
오감으로 느끼는 한옥마을에서의 하루

24 당신을 초대합니다  
망년지우(亡年之友)  
좋은 인연은 감사함의 흔적을 남긴다

26 Mobility for tomorrow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

28 해피투게더  
세플러가 뒹다!  
공포의 외인구단 '세플러 베어링스'

세플러+원

2015 SPRING Vol.40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PAGE 32 : 패밀리가 뒹다  
창원공장 테이퍼베어링 MU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동원 사원 가족의 원동매화축제 나들이



PAGE 40 :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공정기술 안산 이기수 과장과  
함께하는 미술전시회



PAGE 42 : 영화 속 과학이야기  
<백 투더 비기닝>의 드론은 실제로 존재할까?



PAGE 48 : 따뜻한 시선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와 함께하는  
꼬마김밥 만들기



PAGE 52 : 세플러 동행취재  
사보 취재현장을 따라서,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

For Life

32 패밀리가 뒹다  
봄바람 따라 불어오는 꽃내음에 취하다

36 Law school of Schaeffler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의 권리

3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대자연의 아름다움, 캐나다 밴쿠버

40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한 눈에 보는 서양미술사, 필립스 컬렉션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

42 영화 속 과학이야기  
알아서 요리조리 피해 나는 '드론' 곧 나와요

To Communicate

45 새로운 시선  
세플러코리아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당찬 모습의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48 따뜻한 시선  
따뜻한 봄기운을 전합니다  
사랑의 꼬마김밥 만들기

50 세플러 동행취재

52 Schaeffler FOCUS

54 Schaeffler NEWS

61 Schaeffler Hotline

당신의 봄은 어디쯤을 달려가고 있나요?

# 세플러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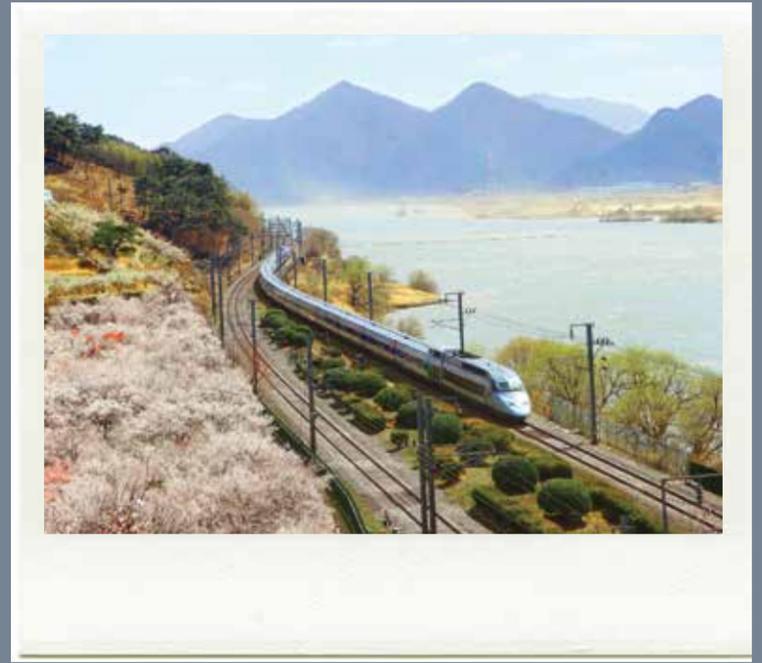
머릿결 살랑이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록새록 봄꽃 소식이 남쪽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지천에 피어있는 봄은  
우리의 발길을 산으로 들로 불러들입니다.

모처럼 준비한 가족과의 봄나들이  
기차를 타고 꽃길을 달려봅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시원스레 스쳐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는 아이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봄 햇살에  
몸도 마음도 포근해집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차여행의 추억  
칙칙폭폭 덜컹이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소음도 진동도  
사라져버린 기차여행이지만  
가족과 함께 달리는 이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라봅니다.  
기차는 봄을 향해 달리고  
지금 우리는 봄 맞으러 갑니다.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술,  
세플러가 함께 합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 속에 숨어있는 세플러의 기술, Axlebox용 베어링

철도용 베어링은 하우징과 베어링이 일체형으로 사용되는 Axlebox용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및 유럽 전역에 걸쳐 고속열차 및 화물열차에 장착되어 있는데, Axlebox용 베어링이 적용된 대표적인 열차로는 고속열차인 독일의 ICE(이체), 프랑스의 TGV(테제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베어링은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특수 고속용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접촉 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순도 높은 특수 스틸로 제조됩니다.

300km 수준의 속도뿐만 아니라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 화물 운반용 특히 탱크리프트 석탄 등 연료를 옮기는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감지 센서 및 진동 센서를 내장하여 이상이 생길 경우 위성으로 신호를 보내 중앙컨트롤타워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 베어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추억시계

## 품질경영 승철진 상무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누구나 풋풋했던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때를 기억에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쉬운 일이지만 어렵고 어설피기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큰 날갯짓이 가능한 것이다. 30년 동안 세플러코리아와 함께해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품질경영 담당 임원 승철진 상무가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 선삭공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

승철진 상무와 베어링과의 인연은 30년 전, 세플러코리아로 인수되기 이전의 한화와 시작되었다. “사실 한화그룹과의 인연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원래 다른 회사의 합격 통보를 기다리던 중, 한화에서 먼저 근무하고 있던 대학 동기생이 제게 입사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입사지원을 하고, 최종 합격통지서까지 받게 되면서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베어링 산업과 저와의 인연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986년 입사 후, 승철진 상무는 부평공장 선삭과에 배정되어 신입사원의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 선삭공정은 자동화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기계와 원재 등을 다른 나라에서도 입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본에서

Taper 선삭 자동화 2개 라인을 도입하여 가동했습니다. 또 원재는 일본에서 수입한 Tube 재를 절단하여 사용하였고, 2~3개 품목은 단조품의 형태로 도입하여 사용했지요. 모든 가공 툴(Bite)들은 초경 팁을 용접하여 사용하였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선삭공정의 기술적 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에 신입사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기에 아직까지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한 이유일 것이다.

###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얻은 짜릿한 자부심

베어링과 함께 지내 온 시간이 오래된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지금은 추억이 되었지만 승철진 상무에게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공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쳤고, 그에 따라 하나씩 문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부서와 협업하여 서로가 동반성장, 발전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우리 회사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미래가 보장되는 길입니다.



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에서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승철진 상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일을 손에 꼽았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원재(Tube재) 규격산출 방식과 연삭도면의 수정으로 원재 규격 최적화로 인한 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던 일, 최초로 베어링 가공에 CNC 선반을 도입하여 철도차량용 베어링의 공정수를 약 1/5로 줄이고 대형 TRB 및 DGBB로 전개해 나갔던 일, 하나의 슬라이드에 두 개 공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최초로 개발 및 적용하였던 일이다. 승철진 상무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길

“이제 세플러코리아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베어링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 베어링만으로 연간 매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회상하며 또한 한 번 세플러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된 세플러코리아를 보여주고 싶다는 승철진 상무.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단지 고객의 평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고객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질적으로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단다. 더불어 그는 고객이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히 내부로 전달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한다. 승철진 상무는 회사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세플러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보다 나은 방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비로소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주변부서와 협업하여 서로가 동반성장, 발전하게

만드는 힘. 그 것이 우리 회사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미래가 보장되는 길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고민들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는 승철진 상무. 그의 끊임 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도 세플러코리아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승철진 상무다.

▼ AP 내 각 지역 품질 대표자들과 함께한 워크숍



▼ 현장 주임들과 부부동반 나들이 단체사진



▶ 선삭공정이 막 자동화 될 무렵, 크게 변화되었던 선삭공정 기술의 중심에 승철진 상무가 있었다. 어쩌면 베어링 산업과 승철진 상무와의 인연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 세계인의 식탁에 정서(情緒)를 올린다

요리연구가 한복선

최근 음식,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음식에 쏠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음식이 가진 정서는 요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먹는 사람의 마음도 치유한다. 음식이 조명 받고 있는 까닭은 비단 그것이 가진 맛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우리 전통음식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통음식에 담긴 '열'을 세계의 식탁에 올리고 싶은 요리연구가 한복선 선생을 만났다.

## 음식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갈래

'미식(美食) 작가', 한복선 선생은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다. 분명 그는 요리만 하지 않는다. 방송매체에 출연해 전통음식을 알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는 시도 쓰고, 탐스럽게 열린 가지와 호박이 담긴 민화도 그린다. 이처럼 음식을 중심으로 한 한복선 선생의 활동 반경은 다양한 갈래로 퍼져 있다.

한복선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제2대 기능보유자 故 황혜성 여사의 차녀다. 언니인 한복려 궁중음식 연구원장과, 동생 한복진 교수와 함께 세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한복선 선생은 현재 궁중음식 기능보유자로 한복선식문화연구원장, 식품회사 대복의 회장을 지내며 전통음식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 역시 한국 전통음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고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언니, 동생과는 하는 일을 달리해요. 전통과 현대, 그 둘을 조화롭게 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전통음식을 현대에 맞춰 변화시키고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영향이었다. 남편이 유학생이던 시절부터 그를 따

라 미국으로 향했던 한복선 선생은 서양 음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정을 꾸린 뒤로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통음식과 세계의 음식을 비교할 수 있었어요. 전통음식이 가진 차별화된 점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지요."

## 삶은 음식 안에 있다

나는 매일 밥한다  
우리 식구가 모두 나에게 밥 달라 응석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밥  
책상에 앉아 글로도 밥을 짓는다  
나는 매일 밥하는 여자

- 한복선 음식 시집 <밥 하는 여자> 中

"안팎의 일이 일맥상통하니 얼마나 좋아요. 밥을 하는 일은 예로부터 여성과 땀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집에서도 밥을 하고 밖에서도 밥을 하고, 글로도 밥을 짓는다. 지난 2013년 발간한 한복선 선생의 음식 시집에 <밥하는 여자>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냉이를 한 움큼 손에 든 한복선 선생의 표정에 생기가 넘친다. 모든 식재료에는 생명이 깃들었다고 말하는 한복선 선생. 봄나물을 다듬는 그의 손길에는 애정이 묻어났다.

짧게 자른 머리와 한복,  
상반된 듯한  
그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룬 모습은  
한복선 선생이  
걸어온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이자 스승이었던 故 황혜성 여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한복선 선생의 모습.

그의 삶은 늘 음식 안에 있었다. 어머니의 어 깨너머에는 항상 음식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보고 배운 것도 음식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학에서 가사과를 전공하던 어머니 황혜성 여사는 '조선음식을 가르치라'는 일본인 학교 교장의 권유로 창덕궁 낙선재를 찾는다. 그곳에서 조선왕조의 마지막 주방 상궁인 故 한희순 상궁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궁중음식 인생에 첫발을 들여놓는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마다 어린 세 딸을 데리고 궁중음식을 배우러 다녔고, 그렇게 어린 세 딸의 궁중음식 인생도 시작된 것이다.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엄마와 딸이 아닌 조수처럼 도제식으로 배웠어요. 재료와 도구의 선택부터 마음가짐, 만드는 음식의 유래까지 어머니께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랐죠."

**기본은 지키되 마음이 가는 대로**

한평생 음식과 함께한 한복선 선생은 어디서든 기본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뿌리만 튼튼하다면 우리의 전통음

식, 궁중음식은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해요. 음식에는 열이 담겨있어요.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정서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40여 년 전처럼 요리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스스로 발전시켜온 음식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더 많은 식탁에 전달하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얼마 있지 않아 두 번째 시집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한복선 선생. 여전히 그만의 방식으로 전통음식을 알리고 있다. 한복선 선생이 그간 써온 책만 해도 60권에 이른다. 수많은 저서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강연까지 다방면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는 "숙제를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숙제로 남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요. 후회도 안 하죠." 숙제 없이 사는 게 자신의 방식이라는 한복선 선생. 마음이 따르는 대로, 즐겁게 임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이상적인 삶의 태도일 것이다.

**한복선 선생님이 추천하는 봄에 먹으면 좋은 음식**

**오미자 화채**

오미자화채는 화사한 봄철에 잘 어울리는 음료다. 또한, 빛이 곱고 맛이 새콤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 봄을 맞아 갑자기 활동하게 되면 비타민이 부족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등 춘곤증 현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 붉은 오미자국에 배나 잣 등을 띄워 마시면 좋다.

**만드는 방법**

재료: 오미자, 물, 설탕, 잣, 배

1. 오미자는 물에 씻어서 찬물 2컵을 부어 하루를 우려내고 면보에 발친다.
2. 우려난 오미자국의 색과 신맛을 보면서 물을 추가하고 설탕을 넣어 녹인다.
3. 배는 얇게 저며 꽃 모양을 찌고, 갈변을 막기 위해 설탕물에 담가둔다.
4. 화채 그릇에 오미자국을 담고 꽃모양의 배와 잣을 띄운다.



# 세플러의 인재를 키운다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기술서비스 **곽동수** 부장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라 불리는 인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모를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기술서비스 **곽동수** 부장이 세플러코리아에 몸담은 지는 올해로 33년. 베어링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는 만능박사로 통하는 베테랑 엔지니어다.



곽동수 부장은 내부직원뿐 아니라 한국 고객들을 위한 엔지니어링 관련 E-Learning도 담당하고 있다. 본래 엔지니어에게만 제공되던 인터넷 버전(internal version)만 있었으나, 교육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익스터널 버전(external version)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 현장에서 쌓은 경험, 교육에 녹여낸다

곽동수 부장은 베어링에 관한 지식수준을 테스트하는 MTC 교육과 Fit on the job 트레이닝부터 최근에는 베어링 매뉴얼인 HR1 카탈로그 번역, E-learning사이트 한글화 작업까지 베어링과 관련한 대내외적 교육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주로 영어로 제작되는 교육 모듈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플러인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위의 작업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베어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업무를 도맡기까지 그가 투자한 것은 비단 오랜 시간뿐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던 곽동수 부장은 이후 공장 생산라인, 영업부서, 지금의 기술서비스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책상물림만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손에 기름 묻히며 제품을 분석하고, 고객과 함께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했지요.” 그간 축적된 오랜 실무 경험은 이제 교육과 더불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쓰이고 있다.

## 세플러코리아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한다

알면 알수록 베어링이 가진 원리와 특성에 빠져들게 된다는 곽동수 부장은 아직도 스스로 베어링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고 말한다. “베어링 관련 기술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게을리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관련 서적들을 읽고, 현장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베어링이 좋은 평가를 받고 나아가 좋은 매출로 이어질 때는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다. 곽동수 부장은 이제는 그 보람이 후배들에게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 세플러코리아의 교육 환경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번역된 교육 모듈도 계속해서 수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된 셈이지요.” 곽동수 부장의 손을 거친 교육과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자신이 갈고닦은 노하우를 최고의 세플러인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는 그는 진정한 ‘Best of the best’다.

대내외적인 교육 시스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사이의 일이다. 앞으로 새로운 카테고리가 늘어갈수록 한국어 번역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는 곽동수 부장. 그의 손을 거친 교육과정들은 또 다른 인재를 길러낼 것이다.



## Best가 되기 위한 곽동수 부장의 3 Step

1. 현장에 나가라. 도면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현물을 마주해야 제품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2. 변화에 적응하라.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처럼 물의 성질대로 주변의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 베어링 기술 발전 및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3. 건강관리에 철저하라.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좋은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곽동수 부장은 E-learning사이트의 로그인과 학습 시작 단계를 쉽게 알리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안내했다.

### Step 1. 아-러닝 플랫폼에 접속

아-러닝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

#### 세플러 웹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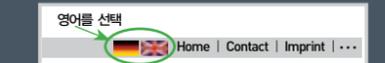
- www.schaeffler.com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좌측에 있는 칼럼의 옵션을 클릭 :  
PRODUCTS AND SERVICES  
→ INA/FAG PRODUCTS  
→ TRAINING  
→ medias®-campus – Online training courses

#### 직접 링크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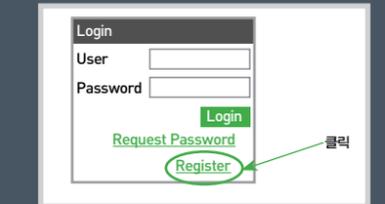
다음의 링크를 이용하여 직접 포탈에 접속:  
[https://schaeffler.e-learning.cc/ext/static/schaeffler/en/startpage.html?set\\_lang=en](https://schaeffler.e-learning.cc/ext/static/schaeffler/en/startpage.html?set_lang=en)

### Step 2. 언어 선택과 등록

- 화면상단에서 ‘영어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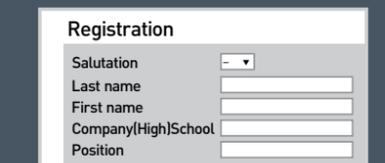


- 좌측 화면 아래 Register를 클릭하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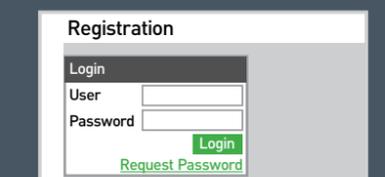
### Step 3. 등록 완료하기

- Registration 창을 통해서 개인 정보 등록
- 등록 후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받음.



### Step 4. 이메일로 받은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 ‘비밀번호 요청’ 옵션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자동적인 비밀번호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춘기 딸이 아빠에게 보내는 수줍은 마음

서울사무소 정보시스템 박윤기 부장의 딸 박수경 양의 편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버리기 쉽다. 매일 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말로는 미처 전하지 못했다면 편지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편지지 위에 나의 진심을 써내려가 보자. 세플러인을 위해 가족이 부친 편지를 소개하는 코너. 언제나 나의 편, 나의 곁에 있어주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부모자식 간 사이가 가장 소원해지기 쉬운 시기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다. 갈수록 예민해지고 비밀이 늘어가는 자녀에게 부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서울사무소 정보시스템 박윤기 부장의 둘째 딸 박수경 양은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예전에는 애교가 많았던 수경 양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급격히 말수가 줄었다고. 박윤기 부장은 무뚝뚝한 딸에게 먼저 다가가 장난을 치곤 한다. 평소 애정표현을 많이 하고, 진로도 함께 고민해주며 자녀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박윤기 부장. 초등학생일 때는 고사리 손으로 곧잘 써오던 딸의 편지가 그림단다.

그런 아빠를 위해 수경 양이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조금 수줍지만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사각사각 편지지 위에 옮겼다. 늦은 저녁, 잠이 든 아빠의 머리맡에 슬며시 올려놓은 수경 양의 편지를 읽어보자.

아빠,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 박윤기 부장의 둘째 딸 수경 양(왼쪽), 맏딸 지원 양(오른쪽)과 함께한 행복한 가족 나들이



▶ 올해는 아빠와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수경 양. 부디 아빠와 딸 사이가 부쩍 가까워지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



## 사랑하는 아빠께

안녕 아빠. 손으로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써 본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 요즘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이렇게 글을 직접 쓰려니 어색하네.^^ 어릴 때는 편지를 곧잘 썼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는 그러지를 못했네. 몇 달 전부터 아빠에게 편지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한참이 지나 이제야 쓰게 되었어.

어느새 나는 중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어. 지난 한 해는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춘기를 겪었던지, 아빠에게 학교생활이나 내 친구들 얘기도 많이 안했었던 것 같아. 내가 애정표현이 줄었다고 서운해 하던 아빠 표정이 생각나. 앞으로는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노력할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챙기고 아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소홀히 대해게 되는 것 같아. 아빠에게 미안한 일도, 고마운 일도 참 많은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말로는 내 마음을 전하기 쑥스러웠어. 항상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이렇게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는 우리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도 같이 가자!

아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사랑해~  
둘째 딸 수경 올림



세플러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평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손편지로 표현해 보세요. 편지와 함께 가족사진(1~2매)을 보내시면 <당신을 생각합니다>에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연이 숨겨둔 선물을 캐는 곳 변산반도 갯벌 체험 **품질보증 전주**

삼면이 바다에 안긴 한반도가 품은 작은 반도 변산은 서해가 품은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혀 '서해의 진주'라고도 불린다.  
이곳 변산반도에 품질보증 전주 구성원들이 1박을 하며, 천혜의 자연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아 나섰다.



## 서해의 진주를 따라 걷다

변산반도를 따라 걷는 마실길은 '마을에 나간 다'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바다와 마을을 꿰어 질 듯 자연스럽게 잇고 있다. 해안코스인 1코스부터 8코스, 내륙코스인 9코스부터 14코스까지 총 163km 길이에 달한다. 품질보증 전주 사우들이 걸은 마실길은 성천마을부터 격포항까지 이어지는 제 3코스, 적벽강 노을길이다. 석양과 노을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 길은 7km에 달하는 거리로 변산반도의 백미로도 꼽힌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7천만 년 전 퇴적한 성층으로 이루어진 채석강과 사자를 닮은 붉은색 암반 적벽강 등 아름다운 해안이 절경을 이룬다. 변산 해수욕장 인근의 펜션에서 1박을 한 부서원들. 아침 일찍 펜션을 나와 마실길 산책에 나섰다. 맑게 갠 하늘과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걷기에 제격인 날씨였다.

## 산과 들, 바다가 있는 산책길

마실길은 사람의 발길로 자연스레 길이 나왔다. 그런 탓에 길이 좁아 나란히 걷기보단 일렬로 죽 서서 가야 한다. 칙칙뽁뽁 기차처럼 줄지은 사우들은 저 멀리 시원하게 펼쳐진 해안을 감상하며 걸어 나갔다. 해안을 지나자 이번에는 푸른 들판이 있는 마을을 가로지르고, 마을을 지나면 아까보단 조금 더 멀리서 해안이 보이는 곳에 출렁다리를 지났다. 걷는 내내 주변 풍경이 달라지니, 다리는 바빠도 지루할 틈이 없다. 얼마나 걸었을까. 붉은색을 띤 바위와 절벽으로 해안이 이루어진 적벽강에 도착한 품질보증 전주 사우들. 울퉁불퉁 솟은 암반을 천천히 밟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정말 맑네요." 이정윤 대리는 낮은 암반 위에 쫓겨 앉아 영롱하게 빛나는 바닷물을 들여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과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걷기에 제격인 날씨였다. 품질보증 전주 사우들이 걸은 마실길에서는 산과 들, 바다까지 지루할 틈 없는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었다.



품질보증 부서의 업무는 공장 내에 있는 측정기와 계측기를 관리 및 교정하는 일이다. 부서원 9명이 실험실, 그리스, 베어링 등 관리 분야를 분담하고 있다. 전주공장의 모든 측정기를 관리하는 만큼, 이들이 없으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공장의 핵심 인력이 모여 있는 셈이다. 적벽강을 둘러보던 임봉환 사원이 운을 뚫었다. “그동안 회식자리를 종종 갖곤 했지만, 1박2일로 여행을 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우들은 그만큼 오늘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진감 넘치는 갯벌에서의 스포츠**

아침에 마실길을 다녀오고 나니,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있고 밀물로 인해 갯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드러난 바다의 속살 군데군데에는 이미 조개를 캐기 시작한 무리들이 보였다. “우리 내기 축구나 한 판 할까요?” 갯벌이라고 조개 캐기만 할 수 있을까. 축구, 씨름, 줄다리기 등 소위 갯벌 스포츠는 갯벌을 더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묘미다. 조개 캐기에 앞서 조완신 사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갯벌축구. 경기는 이정윤 대리를 중심으로 한 OB팀과 이재석 사원을 중심으로 한 YB팀으로 나뉘어 시작됐다. “이쪽으로! 패스해!” 유근식 주임은 소싯적 한 가닥 했다는 축구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골대도, 푸른 잔디도 없지만, 삼을 꽂아 골대를 만들고 너른 갯벌을 잔디 삼으니 충분하다. 사우들은 공을 찰 때마다 튀는 펄이 옷에 묻는 줄도 모르고 그저 공을 쫓았다. 30분 동안 치열한 경기를 펼친 두 팀은 결국 2대2 무승부로 게임을 마무리했다.



**+ mini interview**



**이정윤** 대리  
품질보증 전주

부서원들과 함께한 첫 여행인지라 마음이 더욱 들떴습니다. 적벽강에서 바라본 바다와 갯벌에서 캔 조개까지 다양한 자연의 재미를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이 서해의 진주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바다의 속살에서 찾은 보물**

승부를 내지 못한 축구를 뒤로한 채, 맨발로 갯벌에 발을 디딘 사우들. 바짓단까지 아무지게 걷어 올리고 본격적인 조개 캐기에 나섰다. 찰박찰박 부드러운 갯벌의 감촉을 느끼며 해안 가까이까지 걸어가 자리를 잡았다. “여기, 이런 곳에 조개가 많아.” 사우들 가운데 유일하게 갯벌에서 조개를 캔 경험이 있다는 윤종남 사원은 앞장서 갯벌 이곳 저곳을 파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가 파는 곳곳마다 작은 모시조개가 서너 개씩 나왔다. 사우들은 너도나도 도구를 들고 조개를 캐기 시작했다. “내가 캐낸 것 좀 봐. 정말 크지 않아?” 이재석 사원이 큼지막한 백합 조개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조개를 캐 때마다 누가 더 큰 조개를 캐는지 서로 비교해보는 사우들. 마치 어릴 적 해보았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다. 갯벌에 숨겨진 보물을 캐는 데 열중하다보니 어느새 들고 온 양동이 하나 가득 찼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할 때다.



큼직한 백합 조개를 내보이는 이재석 사원. 갯벌에 숨겨진 보물을 캐는 사우들의 손길이 바빴다.

변산반도에서 1박2일을 한 품질보증 전주 사우들. 바다와 암반, 갯벌까지 천혜의 자연이 숨겨둔 선물들을 누리고 간 그들은 넉넉한 마음을 품에 안고 돌아섰다.



왼쪽부터 노시환 사원, 임봉환 사원, 이정윤 대리, 유근식 주임, 윤종남 사원, 이재석 사원, 박형권 사원, 조완신 사원



# 보고, 먹고, 느끼다 오감으로 느끼는 한옥마을에서의 하루

연구소 Mr. Koerner, Wolfgang / 연구소 김경운 부장



세계 각국에서 온 세플러인을 위해 준비한 글로벌세플러 코너. 한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지만 정작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일 데이트를 마련했다. 연구소 Mr. Koerner가 김경운 부장의 안내를 따라 경주교촌한옥마을을 방문했다.



## 세월을 관통하는 아름다움을 보다

독인에서 온 Mr. Koerner는 현재 연구소에서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다. 그가 세플러코리아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2013년부터다. 막연히 한국이란 나라에 호기심을 품어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이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그런 그를 위해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경운 부장이 함께 경주교촌한옥마을을 찾았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경주교촌한옥마을은 향교와 경주최부자 고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전통한옥마을을 복원한 곳이다. 전통한옥과 더불어 인근에 첨성대, 월성, 계림 등 중요문화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옥이 죽 늘어선 골목을 거닐던 두 사람은 경주최부자 고택에 도착했다. 조선시대 내로라하는 만석꾼이었던 경주최씨 집안은 '사방 100리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선대의 가르침에 따라 빈민구제에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과거의 풍요는 간데없고, 고택만이 고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택 바로 옆에는 경주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 이름이 '교촌'인 이유는 바로 향교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향교는 조선시대 향교의 토대가 되었던 한반도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國學)이 있던 곳이다.

Mr. Koerner와 김경운 부장은 경주최부자 고택과 향교를 찬찬히 둘러보며 이곳에서 흘렸던 시간들을 짐작했다.



한국음식에는 건강한 맛이 느껴진다는 Mr. Koerner. 음식을 집어올리는 젓가락질이 능숙하다.



홀로 한국에 온 Mr. Koerner에게 한국은 온통 낯선 것들 투성이었지만, 김경운 부장이 있었기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김경운 부장은 회사 인팍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었어요. 몇 번 식사를 함께한 뒤로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예(禮)를 다해 마시다**

향교를 지나 그들이 향한 곳은 전통문화다례연구원 안에 들어서자, 1인상과 방식이 각각 준비되어 있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앞에 놓인 상 위에는 수주(水注)와 다관(茶罐), 잔 등 다례를 위한 다기가 다소곳이 올라와 있었다. '다례(茶禮)'는 차를 마시는 것을 중점으로 예의범절, 즉 예(禮)나 몸가짐, 그리고 차와의 조화를 생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전통다례를 배워보기로 했다.

먼저 수주에 담긴 물을 잔에 따르고, 그 다음엔 녹차 잎이 담겨있는 다관 뚜껑을 열어 잔에 담긴 물을 붓는다. 다관에서 차가 충분히 우려나오면, 다시 잔에 따른다. 두 사람은 다례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따랐다. 다례는 순서보다 차를 마시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잔을 들어 눈을 감고 향을 맡아보는 Mr. Koerner.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던 여러 잡념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차는 3번 정도 우리면 가장 맛있게 완성된다. Mr. Koerner는 마지막 세 번째 잔은 선생님의 도움 없이 만들어 보기로 했다. 여전히 서툰 손길이지만 예를 다하려는 그의 마음만으로도 맛있는 차 한 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차를 즐기니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차도 새롭게 느껴지네요.”

**한옥에서 맛보는 한국문화**

전통문화 체험에 음식이 빠질 수가 없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본 두 사람은 마을 내의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한옥으로 지어진 식당에 들어서니 마당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상차림을 주문한 두 사람. 준비된 음식이 하나둘씩 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갈비찜부터 시작

해 버섯들깨탕, 잡채, 회, 전, 온갖 밑반찬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대로 한상 차려졌다.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충분히 많은 한국음식을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 음식들이 상당하네요.” 젓가락을 손에 든 Mr. Koerner는 무얼 먼저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한국 음식은 맛도 정말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조리법 때문인 것 같아요.”

배가 불러올 때쯤, 두 사람의 체험도 끝이 다가왔다. Mr. Koerner는 오는 6월이면 고국인 독일로 돌아간다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건 분명 잘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 좋았어요. 앞으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난 뒤에도 오늘의 추억을 언제고 간직하길 바란다.



## 망년지우(亡年之友), 좋은 인연은 감사함의 흔적을 남긴다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김종역 부장

인생의 멘토는 누구나 있기 마련이다. 한 번쯤은 찾아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조그마한 대접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것이다.

〈당신을 초대합니다〉에서는 맛있는 제철음식으로 자신의 멘토, 선배, 은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첫 주인공으로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김종역 부장이 전 세플러코리아 한효섭 연구소장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김종역 부장

“그 동안 항상 건강하고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향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길 믿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 지역 속 아련한 첫 만남부터 동료로서 재회할 때까지

김종역 부장이 한효섭 전 연구소장과 첫 인연을 맺었던 그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배님을 처음 뵈었던 곳은 창원공장이었죠. 품질관리부장이셨던 선배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인자하셨습니다.” 첫 만남을 회상하듯 김종역 부장이 먼저 말을 건넸다. “맞아. 김 부장은 그 때 서울사무소 기술영업에 있을 때였어. 창원공장에 매우 중요한 고객이 공정 감사 방문했을 때 김 부장을 초청했었지. 그 때 김 부장은 두주불사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니더라고. 하하하.” 옛 기억을 주고받던 두 사람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前 세플러코리아  
한효섭 연구소장

“김종역 부장, 항상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좋은 인간관계로 소통이 자유로우면 모든 일이 잘 풀릴거야. 현재 업무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힘내게.”



### 감사함을 가득 담은 불철 보양식, 주꾸미 한 접시

오늘 김종역 부장은 한효섭 전 연구소장에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따뜻한 불날, 선배님과 함께 건강에 좋은 불철 주꾸미를 먹고 싶었습니다.” 피로회복에 좋다는 주꾸미는 불철 입맛을 돋우는 맛깔진 음식이다. 김종역 부장은 잘 익힌 주꾸미 한 접시를 덜어 한효섭 전 연구소장 앞에 내려놓았다. “불철 보양식 주꾸미 한 접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예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1976년에 입사하여 2014년 12월 까지, 39년간 회사생활을 한 한효섭 전 연구소장에게 세플러와의 인연 또한 남달랐다. 특히 2010년 퇴직 후 세플러 베트남 기술고문으로 파견되어 4년간 베트남에서 보낸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한효섭 전 연구소장은 김종역 부장에게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선배님과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서 영광입니다. 예전 함께 웃으며 일했던 그 때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오늘처럼 맛난 음식 함께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망년지우(亡年之友), 두 사람은 좋은 선배라는 두터운 인연으로 보듬어주고 응원하며 서로에게 큰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평연구소에서 다시 재회하였고, 오랫동안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갔다. “같이 일할 때 김 부장은 항상 긍정맨이었어.” 김종역 부장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책임감 강하고 든직했다고 더했다. “저에게 선배님은 직장인으로서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술선수범 하셨으며,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새빨간 주꾸미가 불판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올려지고 있었다.

# 2015 서울모터쇼



따라 하는 인공지능 로봇부터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래 기술들이 대거 등장했다. '혼다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꾸민 혼다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미래 자동차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앞선 기술력을 국내 관람객에게 각인시킨다는 전략 아래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시모'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최근 구글 등 IT업계까지 속속 개발에 가세하며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도 이번 모터쇼에서 접할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는 '익스피리언스 모비스'라는 주제를 내걸고 자동차 관련 각종 신기술을 체험형 시뮬레이터와 대형 정보단말기를 통해 소개하였

다. 특히 전시장 한켠에 실제 차량의 운전석을 그대로 옮겨놓은 시뮬레이터를 마련, 가상 화면을 통해 미래 자율주행차량의 근간이 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자동차를 다양하게 개조할 수 있는 튜닝 전시관과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시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푸드트럭은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7대가 운영되며 제 1전시관 5홀에 5대, 제 2전시관 9홀에 2대가 마련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커피, 샌드위치, 음료 등을 판매하였다.

##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2015서울모터쇼가 4월 3일에서 12일까지 총 열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만한 차량이 대거 선보였다. 올해 서울모터쇼 주제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로 자동차에 접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 부대 행사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전시 품격을 높였다.



'2015 서울모터쇼'는 총 57종의 신차가 전시되었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CUV 콘셉트카 엔듀로, 올 뉴 마이티를 포함해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도 모터쇼 관람객에게 공개했다.



자동차 관련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다. 최근 구글 등 IT업계까지 속속 개발에 가세하며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도 이번 모터쇼에서 접할 수 있었다.

### 화려한 신차의 전시장

이번 서울모터쇼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 7종, 아시아 프리미어 9종, 한국 프리미어 41종, 토탈 57종의 신차가 전시되었다. 기아자동차에서 신형 K5와 콘셉트카를, 한국지엠에서는 차세대 쉐보레 스파크, 현대차에서는 CUV 콘셉트카 엔듀로, 올 뉴 마이티 등의 차량을 선보이며, 쌍용차는 콘셉트카 XAV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다.

###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의 치열한 연비 경쟁

서울모터쇼 무대는 친환경차 시장을 둘러

싼 연비 경쟁도 볼 만하다. 현대자동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1L 기름으로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를 출품한다. PHEV는 엔진과 전기모터 힘으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카에 외부 전기충전을 더해 연료 효율을 높인 차다.

현대차는 판매를 준비 중인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터쇼 관람객에게 공개했다. 완성차 업계 최초의 PHEV다. 동력 성능은 최고출력 154마력의 2.0L 직분사(GDI) 엔진과 48마력짜리 전기모터(50kW)를 통해 최대 202마력을 낸다. 전기 모드만으로 35km 주행하고 전체 시스템 연비는 L당 약 18km를 달린다.

아우디는 A3 전기차(e-트론) 판매 일정을 연내로 확정했다. 서울모터쇼에서 시장 반응을 살펴본 뒤 하반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A3 e-트론은 1.4L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해 최대 204마력을 낸다. 전기 모터만으로도 최대 50km까지 주행하고, L당 연비는 66.6km(유럽 기준)에 달한다.

### 미리 보는 미래 기술의 향연

'2015 서울모터쇼'는 자동차 관련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다. 실제 이날 언론을 상대로 참가 업체들이 진행한 모터쇼 설명회에서는 인간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 세플러가 뒀다! 공포의 외인구단 '세플러 베어링스'

따뜻한 햇볕, 창원 대산야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창원공장의 야구동호회 '세플러 베어링스'다. 2015년 첫 경기를 앞두고 15명의 회원 모두 비장한 각오로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고 있었지만, 사방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즐거는 야구를 하자'가 목표라는 '세플러 베어링스'를 소개한다.

창원공장 야구동호회



①홍기승 사원 ②서정훈 과장 ③정기운 사원 ④박종철 부장 ⑤허연철 사원 ⑥류해민 사원 ⑦손강우 사원  
⑧이창민 사원 ⑨최명석 주임 ⑩배근수 주임 ⑪황순석 과장 ⑫천영석 과장 ⑬손재용 주임



## 세플러 베어링스, 야구를 즐긴다

운동장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주황색 유니폼을 갖춰 입을 회원들이 동그랗게 모여섰다. 20대부터 50대까지 두터운 선수층을 이루고 있다는 '세플러 베어링스'는 창원공장의 야구동호회다. "야구동호회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으니 굉장히 오래됐죠." 등번호 00번에 빛나는 배근수 주임이 바로 '세플러 베어링스'의 감독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2008년에 재결성된 창원공장의 야구동호회는 작년까지 '세플러 코리아 야구단'으로 창원시 직장인 야구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팀명을 '세플러 베어링스'로 개명하고, 유니폼도 새롭게 맞춰 의지를 다졌다.

'세플러 베어링스'는 지난 해 사회인 야구 3부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고 2부 리그로 승격했다. 2013년 9승 2패로 아쉬운 2위의 결과를 얻었지만, 2014년에는 11전 전승으로 3부 리그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주전 비주전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즐기는 야구를 실천하고 있기에 좋은 결과가 이끌었는지 모른다.

## 끈끈한 단합이 만들어낸 미션 성공!

운동장 한 편에서는 <세플러+원>이 준비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플러 베어링스'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야구공으로 풍선 맞춰 터트리기'. 약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파란색 풍선이 봄바람에 나부꼈다. 자신 있어 보이던 15

명의 회원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미션 성공을 위해 2명씩 짝지어 캐치볼 연습에 돌입했다. 가볍게 몸을 풀 회원들이 3열중대로 미션수행을 위해 줄지어 섰다. 3개의 풍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온 야구공은 아쉽게도 풍선을 빗겨갔다. 회원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풍선 앞에 섰다. "평!" 배근수 주임이 던진 야구공이 힘차게 풍선을 터트렸다. "보기에 쉬운 미션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게임에 임하였는데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뒤이어 나머지 풍선을 모두 터트리고서야 회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미션 성공 상품인 야구공 세트와 배트를 품에 안고, 다음 경기를 위해 동글게 둘러섰다. "세플러 베어링스, 화이팅!"



"저희 팀은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야구를 정말 재밌게 즐기는 것이 전략이죠."

+ mini interview



**이창민** 사원  
창원공장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 MU

야구동호회 '세플러 베어링스'를 통해 많은 선·후배님과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일상의 피로를 야구를 통해 날려버릴 수 있어 좋습니다. 세플러 베어링스 회원 모두 즐거운 야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망설임 없이 세플러 베어링스를 찾아주세요!

**힘차게 돌아가는 야구공이 이뤄낸 짜릿한 콜드승**

올해 첫 경기에 출전하는 만큼 모두의 얼굴에 비장함과 긴장이 맴돌았다. 오늘 '세플러 베어링스'와 대적할 팀은 두산중공업 야구단. 서로를 의식하듯 경기 시작을 위해 마주보고 섰다. 두산중공업의 공격으로 시작된 경기는 '세플러 베어링스'의 완벽한 수비로 금세 1회초를 끝내버렸다. 1회말에서는 장호근 사원의 첫 안타에 이어 연달아 안타를 치며 순식간에 만루 상황을 만들었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서로를 향해 외치던 응원만 1회에서만 6대 0으로 만들며 상대를 제압했다.

이어진 '세플러 베어링스'의 4번 타자인 허연철 사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허연철 사원이 3타수 3안타, 팀의 선발 투수인 손강우 사원이 1실점을 잘 막아주어 최종 스코어 11:1로 콜드승을 거둔 것이다. 팀 감독인 배근수 주임에게 승리 전략을 묻자, "저희 팀은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야구를 정말 재밌게 즐기는 것이 전략이죠." 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회인 야구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합을 자주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시합이 없는 주말이면 1공장 야구 연습장에서 야구를 즐긴다는 '세플러 베어링스'. 팀원들 모두가 즐기는 야구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힘차게 던져 날아가는 야구 공처럼, 세플러 창원공장의 '세플러 베어링스'는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더 멀리 날갯짓 할 것이다.

'세플러 베어링스'의 가장 큰 장점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두터운 선수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 모두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 진심을 다해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 For Life



## 성실한 하루의 흔적, 손의 기름때 제거하기

손에 묻은 기름때는 일반 비누나 손세정제로는 아무리 문질러도 깨끗이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손과 손톱 밑에 낀 기름때를 안전하고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 😊 Good

- ① **설탕을 손에 묻혀 비벼보세요.**  
비누로 손을 씻은 다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설탕을 1티스푼 정도 손바닥에 올려 손을 비벼줍니다. 비누와 설탕은 계면활성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름때가 깨끗이 제거됩니다.
- ② **기름때는 식용유로 닦아내세요.**  
손에 식용유를 발라 기름때를 식용유와 섞이게 한 뒤, 천으로 닦아냅니다. 위의 방법을 2~3회 반복합니다. 그다음 비누로 손을 씻으면 기름이 기름을 녹여 기름때를 뺄 수 있습니다.
- ③ **피부보호제를 꼭 발라주세요.**  
기름이 닿으면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해 쉽게 갈라지고, 이 틈으로 기름이 계속 침투하여 혈액순환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 전체에 수시로 피부보호제를 발라줍니다.

### 😞 Bad

- ① **가솔린, 케로신, 솔벤트와 같은 강력 세척제는 안돼요.**  
강력 세척제는 화학약품으로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사용해 손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 세척제는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수세미로 피부를 문지르면 안돼요.**  
손의 기름때를 표면이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면, 강한 자극이 가해져 피부가 심하게 상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손을 닦아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봄바람 따라 불어오는 꽃내음에 취하다

창원공장 테이퍼베어링 MU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감동원 사원

계절을, 또한 그 고장을 한 번에 느끼고 싶다면 지역축제로 가자.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선 사람들, 시골벽적인 음악 소리. 축제는 늘 활기차다. 세뽈러인 가족과 함께 사계절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자. 봄에는 역시 꽃. 봄소식을 전하는 원동매화축제로 창원공장 테이퍼베어링 MU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조립 감동원 사원 가족이 떴다!



## 봄꽃의 대명사, 그윽한 매화 향기 속으로

봄기운이 만연한 3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 위치한 영포 매화마을 일대는 꽃구경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흑한 추위를 용케 견딘 매화가 한 송이, 두 송이 봄을 알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나 가득 만개해 상춘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영남권 최대 축제인 원동매화축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1930년경 삼정지 마을에서 시작한 매실 재배는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영포마을을 중심으로 대단위 재배하게 되었다. 원동매화축제는 원동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면서 현재는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하얀 청매화와 붉은 홍매화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봄바람에 꽃비가 흩날리던 이날,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감동원 사원 가족이 축제 장소인 쌍포매실다목적광장에 도착했다. “꽃 반, 사람 반이네요.” 한낮의 축제 현장에는 활짝 핀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매화 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과 연인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감동원 사원은 아내 권춘아 씨와 두 아들 승민이, 래은이까지 총 네 가족이다. 종종 지역축제에 참여하곤 했지만 원동에도 이렇게 큰 매화축제가 열리는 줄 이번엔 알게 되었다. “매화 자체로도 충분히 예쁘지만, 매실 밭 가득 핀 매화가 이룬 풍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두 아들의 손을 꼭 붙잡은 감 사원은 주변 경치에 감탄하며 매실 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 매실나무에도, 네 가족 얼굴에도 핀 꽃

“꽃이 하얗서 눈 같아요!” 감동원 사원의 둘째 아들 래은이가 자기 머리 위에 매달린 매화가 손에 닿을 듯 뻗어 가리켰다. 나뭇가지에 핀 매화는 래은이의 말대로 꼭 눈송이를 닮아 있었다. “아빠가 자세히 보여줄게.” 감동원 사원은 래은이를 안아주고 매화나무 가까이 다가갔다. 매화에 앉아있던 꿀벌이 날아간 자리에는 그윽한 꽃향이 남아 코끝을 간질였다.

올해로 초등학교가 된 둘째 래은이와 두 살 형인 승민이. 매실 밭을 거니는 내내 티격태격하던 형제는 또 어느새 돌아보면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차분하고 수줍음이 많은 첫째는 저를, 고집 센 말괄량이 둘째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감동원 사원의 아내 권춘아 씨는 틈만 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아이들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들다고, 이날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꽃구경은 뒷전이 된 춘아 씨. 그런 아내를 바라보던 감 사원은 매화꽃 한 송이를 아내의 귀에 꽂아주었다. “언제 때 이런 건 안 해봤지. 오늘은 우리도 분위기 한 번 내볼까?” 서로에게 꽃을 꽂아주는 아빠. 엄마를 보던 승민이와 래은이도 너나할 것 없이 떨어진 매화를 주워 귀에 꽂았다. 그렇게 네 가족 얼굴에도 꽃이 피었다.



### 그림으로 남은 매화축제에서의 추억

최근 바쁜 회사일로 미처 가족들과 멀리 나가지 못했다는 감동원 사원은 시간이 나기만 하면 가족여행은 무조건 1박2일로 계획한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죠. 가족의 추억이자 아이들 성장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날 승민이와 래은이는 또 무엇을 경험해 갔을까.

원동매화축제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띄워줄 각종 공연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참여할 만한 행사는 바로 사생대회다. 승민이와 래은이도 준비해온 스케치북을 펼쳐들었다. 색색의 크레파스를 양 손에 쥔 형제는 꼭 붙여 앉아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흘렸을까, 이제 그만 가자는 아빠의 말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크레파스를 내려놓을 줄 몰랐다. 오늘의 추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남긴 승민이와 래은이. 아빠의 바람처럼 한 뼘 더 자랐길 바란다.

서로에게 꽃을 꽂아주는  
아빠, 엄마를 보던  
승민이와 래은이도  
너나할 것 없이  
떨어진 매화를 주워  
귀에 꽂았다.  
그렇게 네 가족 얼굴에도  
꽃이 피었다.



"매화 자체로도 충분히 예쁘지만, 매실 발 가득 핀 매화가 이룬 풍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두 아들의 손을 꼭 붙잡은 감동원 사원은 매실 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 + Tip

##### 원동매화축제

원동매화축제는 매년 3월 4째 주 주말에 열린다. 매화 발과 경부선 철도, 낙동강 물길이 어우러진 진풍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향토자원 베스트 30선',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 : 055.392.2547~8

주소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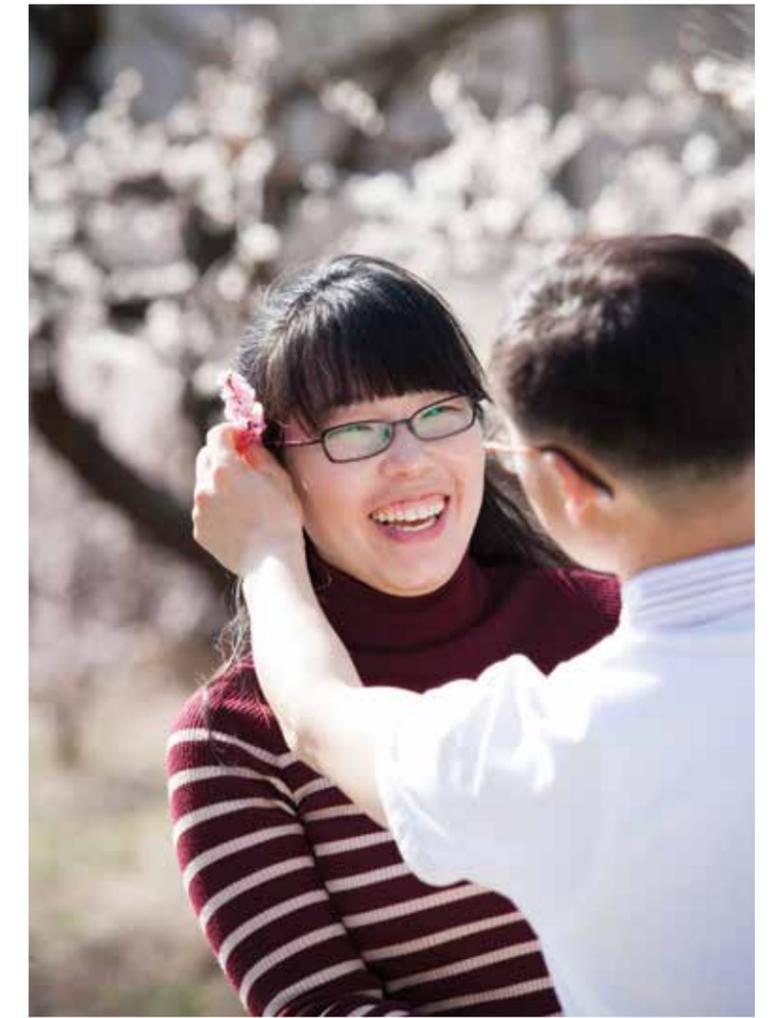
홈페이지 : ywmfestival.co.kr

### 축제의 마지막은 배부르게

꽃구경을 마치고 나니 먹거리 장터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에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장터에는 빨간색, 파란색 천막들이 길게 죽 이어져 온갖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 부침개, 장터국수 등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부터 특히 이곳의 특산물인 매실과 미나리도 맛볼 수 있었다. 원동 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충분한 일조량은 과육이 단단한 매실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미나리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다.

장터를 둘러보던 감동원 사원 가족은 아외테이블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테이블에 올라온 향긋한 미나리전과 시원한 장터국수.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첫 가락을 집어 들었다. "아~" 감동원 사원은 미나리전을 한 입 크게 떼어내 승민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한창 축제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공연을 보며 식사를 하는 동안,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

감동원 사원 가족은 아직 축제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은 광장을 뒤로한 채, 매화 마을을 빠져나왔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보기운에 제대로 취했습니다." 흡족하게 축제를 즐긴 감동원 사원 가족. 피곤한 기색 보단 오히려 봄처럼 활기차 보였다. 네 가족의 미래도 언제나 봄날 같길 바란다.



#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의 권리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상 속 법률 상식, 'Law school of Schaeffler' 코너를 통해 배워보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사소하지만 어려운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연인 B 씨와 3년간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제 만 2세가 된 아들 C와 B 씨의 뱃속에 있는 둘째 D와 함께 이틀 식구는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셋집에서 따뜻하게 생활했다.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되어 간다고 느낀 A 씨는 조만간 늦은 결혼식도 올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리라 마음먹는다. 그러나 늦은 밤, 아내 B 씨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가지고 귀가하는 길에 A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인 B 씨와 그 아들인 C,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 자녀 D는 어떤 상속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 01

사실혼 배우자 B는 일반적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의미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B 씨는 A 씨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등의 동산 재산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 02

부모의 혼인관계 효력과 관계없이 C(첫째)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 한편,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의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직계비속은 생물학적으로 자녀이기만 하면 인정되고 부모 간 혼인의 효력은 무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A 씨의 아들인 C는 비록 부모인 A 씨와 B 씨 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외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며, 만약 A 씨가 생전에 C를 자녀로 인지신고 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C가 A 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

● 결국, C는 A 씨의 재산은 물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도 상속받을 수 있다.

## 04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D(둘째)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 우리 민법은 제1000조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태어날 D도 현재는 태아 상태라 할지라도 C와 함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겠다.

● 한편, 민법 제858조의 '포태중인 자녀에 대한 인지제도'에 의하여 A 씨는 생전에 D에 대하여 태아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라도 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864조에 의해 D는 출생 직후 마찬가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03

사실혼 배우자 B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험 및 연금의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73조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등'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A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도 최우선 순위자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부양가족연금 수급권도 함께 가질 수 있다.

## 05

사실혼 배우자도 주택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9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고(제1항),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사망 당시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함께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제2항).

● 본 사례의 경우에는 A 씨의 사망 당시 최소한 C가 유효한 상속인으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의 보호조항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사실혼 배우자인 B 씨가 계속 자녀들과 함께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대자연의 아름다움, 캐나다 벤쿠버

업무지원 전주 박대석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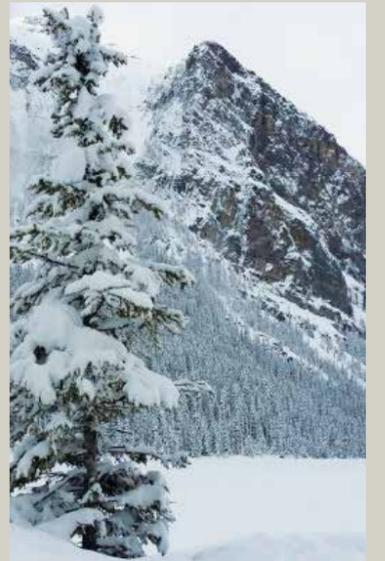
이국에서 새로운 삶을 결정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나와 아내는 캐나다 벤쿠버로 향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에도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타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역경의 연속임을 알기에 걱정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아들 내외를 보는 순간 걱정은 다 사라지고 반가움의 미소만이 얼굴에 가득했다.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모여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 '벤쿠버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하고 들뜬 마음과 함께 우리가족의 7박 9일간의 벤쿠버 여행은 시작되었다.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로키산맥과 루이스 호수였다. 로키산맥은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관광지'중에 하나로

뽕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는 벤쿠버에서 약 8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로키산맥으로 향했다. 약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한 끝에 로키산맥 아래 위치하고 있는 루이스 호수에 도착했다. 눈과 빙하로 덮인 빅토리아산 아래 유유히 떠 있는 루이스 호수는 마치 영롱한 에메랄드와 같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관에 우리는 말없이 바라보지만 하였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평소 산을 좋아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들을 많이 가봤지만 로키산맥에서는 대자연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에 감동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 안에서 살아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니 걱정되는 마음이 한 순간에 사라질 정도였다. 로키산맥과 그 주변 지역을 여행 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유명한 역사유적을 본 것은 아니지만 대자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 경이로운 자연을 뒤로하며 우리가족은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내외의 집에 도착해 집을 둘러보면서 이국땅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정착한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벤쿠버에서의 마지막밤이 흘러 갔다. 우리가족의 옛 추억에서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우리 가족들의 눈물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을 방문했다. 태권도장에는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지 캐나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의 태권도를 배우려고 모인 외

국인들이 신기하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뒤로한 채 부인과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아들내외와 벤쿠버를 여행하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의로움에 감동했고, 아들내외의 성공적인 정착에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는 벤쿠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한 날이 펼쳐지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 한 눈에 보는 서양미술사, 필립스 컬렉션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

공정기술 안산 이기수 과장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은 필립스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유명 걸작들로 이루어진 전시회다. 작품을 통해 시대적 배경의 흐름과 예술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시회 현장으로 공정기술 안산 이기수 과장이 안내한다.



##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세심한 붓 터치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앵그르의 〈목욕하는 여인〉 작품이 담긴 전시회 포스터가 가득했다. 19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앵그르는 작품을 통해 여체의 곡선을 표현하고자 몸을 왜곡시켜 리듬감있는 선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번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인 만큼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의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됐다.

전시회는 시대별로 19세기 사실주의의 블루존, 20세기 모던주의의 레드존, 추상 표현주의와 현대미술의 블랙존,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표현이 억압되었던 사실주의의 작품이 나열돼 있는 블루존에서 이기수 과장은 한 작품 앞에 한참 머물렀다. 바로 클로드 모네의 〈베퇴이유로 가는 길〉. 4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회화의 관습을 무너뜨린, 미술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인상주의의 대표작이다.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오면서 밝은 색상이 많이 쓰이고, 그림의 대상이 인물에서 다양하게 변화된 것 같아요. 특히 빛에 따라 사물의 색상을 표현한 모네의 그림이 인상 깊어요. 이 시대의 작품들 대부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

미국의 필립스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미술의 걸작들을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였다. 신고전주의부터 추상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68명의 거장들이 그린 명화로 구성됐다.



에드가 드가 (Edgar Degas), 〈스트레칭하는 무용수들 [Dancers at the Barre]〉, 캔버스에 유화, 1900년 경, 130.2 x 87.8  
에드가 드가는 몸이 만들어내는 조형미와 빛에 포착된 발레리나의 모습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 작품은 드가의 인상주의적 색채, 역동적인 동작의 표현, 안정적인 화면 구도가 돋보인다.

##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아름다운 색채

강렬한 붉은 벽의 레드존에 들어서자마자 작품의 성격이 확연히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900년대 초반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입체주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창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된 파블로 피카소 〈푸른 방〉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푸른 방〉에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1954년 한 복원 전문가가 그림의 붓질이 작품의 구성과 어울리지 않아 그림 밑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고, 1990년대 들어서 X선 분석을 통해 그림 표면 밑에 흐릿한 이미지가 있음을 발견했대요. 결국 2008년 첨단 적외선 영상 기술을 통해 처음으로 이 작품 아래 수염이 난 남성의 초상의 이미지가 겹쳐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요.” 이는 당시 캔버스를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파블로 피카소가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추상표현주의와 현대미술을 소개한 블랙존으로 이동했다. 2세기를 거쳐 지나온 미술사는 작품만으로 많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자연과 인물이 주가 되어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과거 미술과 달리, 현대미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로 나열됐다. 숨 가쁘게 흘러간 서양미술사의 길목에서 만났던 이기수 대리에게 이번 전시회는 따뜻한 봄날의 산책이었을 것이다.

(This exhibition has been organized by The Phillips Collection, Washington, D.C.)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베퇴이유로 가는 길 [The Road to Vétheuil]〉, 캔버스에 유화, 1879, 59.4 x 72.7  
인상주의 대표 화가 클로드 모네는 물 위에서 반짝이는 빛의 움직임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작가다. 특히 이 작품은 모네가 같은 장소에서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을 각각 담아내어 같은 제목으로 5점을 완성했다.



## + mini interview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서양미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작품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 깊었습니다. 이번 미술전시회 관람을 통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게 해주는 좋은 여가생활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색채는 건반, 눈은 화음,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이다.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 바실리 칸딘스키



© 2014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 (Korea)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푸른 방 [The Blue Room]〉, 캔버스에 유화, 1901, 50.5 x 61.6  
파블로 피카소의 ‘청색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로, 피카소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투영하기 위해 차가운 남색과 코발트 블루의 색채의 그림들이 대다수다.

# 알아서 요리조리 피해 나는 ‘드론’ 곧 나와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과학의 상상력, 원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코너 '영화 속 과학이야기'. 과학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이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과학 소재를 통해 과학과 좀 더 친해져 보자.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소형 드론'에 대한 개정 법안을 내놨다. 개정법에 따르면 드론은 도심 등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또 사람의 가시권에서만 비행 조절이 가능토록 했다. 아마존·DHL·알리바바 등 도심지역의 드론 택배 구상을 현실화해 오던 유통 공룡 기업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다.

**재난용·중불법어선 감시 등 용도 무궁무진**  
드론(Drone, 무인비행체)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를 통해 조정하는 소형 비행체를 뜻한다. 4개 회전날개를 지닌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쿼드콥터'라고도 불린다. 드론은 목적에 따라 크기·성능이 달라진다. 주로 군사용 드론은 대형 비행체 모습을 띄었으나 최근 영화·TV방송 촬영이나 간단한 짐을

옮기는 초소형 드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연재해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 등에 우선 투입돼 인간 대신 일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톰 크루즈 주연의 SF영화 <올리비언(2013년)>에선 '정찰·공격 드론'이 등장한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용 무기로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극중에서는 '살



영화 <올리비언>

상용 무인기'이나, 척박한 환경에서 보여준 드론의 임무수행 능력은 향후 재난대비 등의 용도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기대감을 안겨 준다. 드론은 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경제 분야 '이슈메이커'로 부상했다. 이달 정부는 드론을 '중국 불법어선 감시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데이비드의 드론, 최하위 점수 받은 이유

시간여행 스릴러 <백 투더 비기닝(2015년)>의 첫 장면에는 최근 미국 명문대 중심으로 불고 있는 독특한 입시전형이 등장한다. 과학에 재능 있는 주인공 데이비드(조니 웨스턴)와 그의 친구인 킴(샘 러너), 아담(엘렌 에반젤리스타)은 장갑에 부착한 센서를 이용해 드론을 작동시키는 실험을 영상으로 담아 MIT공대 입학허가를 받으려 한다.

드론이 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 융복합의 대표적인 모델로 부상한 탓에 MIT에선 이 같은 전형 방식을 실제로도 시행 중이라고 이종필 고려대 연구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영화에서 데이비드의 드론은 통신망 결함으로 센서 조정권 밖으로 벗어나면서 추락하고 만다. 이때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은 마치 공중에서 폭탄이라도 떨어지듯 몸을 숨기느라 한바탕 난리를 펼치고, 테스트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만다. 이 때문에 MIT는 데이비드에게 입학은 허락하나 최하위 장학금만 지급한다. 손가락 센서로 운전하는 드론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낮은 평가를 얻게 된 이유다.

### 법망 피해라... '알아서 피하는' 드론 개발

미국 연방항공청이 내놓은 개정안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택배 드론을 허용치 않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심지역의 드론 택배

구상을 도모하던 기업들은 개정안을 개정할 새 기술 개발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감지·회피' 기능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는 비행 경로상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드론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해 비행 고도·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성능이 완성될 경우, 인구밀집지역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드론 기술 개발은 이제 막 '안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관련 기술개발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월, 반도체 전문업체 인텔은 어센딩테크놀로지사와 함께 비행경로 중에 난입한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는 '장애물 회피 기동' 능력을 지닌 '멀티콥터 드론' 신제품을 개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과학

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 교수는 "수 십, 수 백 여대의 드론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택배 드론의 경우, 조류·어류·곤충 무리가 하나의 단위체로 비행·유영하는 행동 능력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사용의 법적 허용은 '양날의 검'이다. 주문 즉시 배달되는 편리성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간의 손이 닿기 힘든 고립지로 의약품을 운반하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자동차 사고율보다 훨씬 높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충돌 회피능력까지 모두 갖춘 미래형 드론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간 도우미'로 혁혁한 성과를 내며, 전천후로 활동하는 드론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영화 <백 투더 비기닝>에 등장한 드론, 주인공 데이비드는 MIT공대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이용해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개발했다.



## ☀️ 완전한 봄기운을 느끼며

기나긴 물줄기를 따라 힘차게 페달을 구른다.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과 달달하게 넘어가는 침 한 방울,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부드러워 송골송골 맺힌 땀을 시원히 식혀준다. 남한에서 가장 긴 강줄기를 자랑하는 낙동강. 그 중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까지 달려본다. 약 22km의 거리로 약 1시간 25분 코스이다.

## 낙동강을 구르다

타지역에서 강정고령보로 가는 방법은 대구지하철과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강창곡 인근의 대구지하철 2호선 대실역과 강창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하니 이를 준수해야 한다.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은 팔달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강정고령보 구간까지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 코스는 강정고령보 자전거길 인증센터에서 출발하여 달성보 자전거길 인증센터까지 가는 코스이다. 비교적 오르내림이 적고 노면도 고른 편이어서 전문 라이더가 아니어도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강정고령보에는 가야토기를 형상화한 '탄주대'와 톱니바퀴 형상을 한 친수공간인 '낙락섬'이 있어 물을 직접 즐길 수 있다. 인공섬인 '낙락섬'에서 바라본 강 건너의 '디아크문화관', 물 위를 뛰어오르는 한 마리의 물고기 같은 이 문화관에서 건축과 전시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강 옆으로 잘 다져진 자전거길을 따라 달성보에 도착한다. 달성보의 '달성나래센터' 전망대에서 탁 트인 시야로 낙동강의 전경을 만끽할 수 있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자전거를 꺼내 오는 주말, 페달 위에서 봄기운을 완연히 느끼고 햇빛에 부서지는 낙동강의 푸른 물줄기를 한눈에 담아보자.

주소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6  
문의 1577.4359

# 세플러코리아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당찬 모습의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각자의 맡은 업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신입사원 21명의 입사 각오와 '나는 00하는(한) 세플러인이 되겠다.'는 신입사원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 서울



**김지용 \_ 재무 Unit 회계**  
나는 러블리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맡은 직무에 전문성을 갖춘 세플러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회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 감각을 키우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진 \_ CEO 조직 전략기획**  
나는 동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전략기획 전문가로 창의적인 기획안을 발표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조직의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원이지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가족같은 막내 사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신현아 \_ 재무 Unit 회계**  
나는 열정적인 세플러인이 되겠다.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제 몫을 해내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팀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오한울 \_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동력산업**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말보다는 실천하며, 전기자동차 및 산업기계 부분 베어링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승민 \_ 구매 System, Process & Controlling**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선배님에게도 인정받고 후배님에게도 존경받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세플러에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전천후로 기여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혜연 \_ 사시&약세서리 드라이브 BU**  
나는 발전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올 한해 묵묵히 진보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선 \_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에너지&중공업**  
나는 함께 앞서가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누구나 원하는 임직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원**



**김지성 \_ 테이퍼베어링 MU**  
**나는 원칙을 지키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뛰어난 '품질'을 넘어, 뛰어난 '품격'을 지닌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현대 \_ 볼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  
**나는 박자성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베어링 회사인 세플러는 나에게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같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인정받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구소**



**김길홍 \_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나는 자기 업무에 충실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늘 선배님들께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업무처리에 능숙해져서 누구나 저에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_ 사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나는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선배님들에게 칭찬 받고 후배들에게 존경 받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소닉처럼 열심히 달리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베어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훈 \_ 테이퍼베어링 MU**  
**나는 스페셜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세플러인이 되기 위해 발로 뛰고, 웃으며 생활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조응래 \_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나는 신속 정확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글로벌한 감각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기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공정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상호 \_ 사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나는 순수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저에게 세플러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일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_ 제품기술팀**  
**나는 믿을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나에게 세플러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고 일할 수 있는 사원이 되기 위해 보다 노력해서 관련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조동현 \_ 제품기술팀**  
**나는 누구보다 유쾌하게 일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세플러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전주**



**강석환 \_ 설비보전 전주**  
**나는 F1 머신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겠습니다. 베어링 생산설비의 효율 극대화를 달성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설비보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 \_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나는 당당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저에는 소중한 직장입니다. 간절히 바랐던 것 만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대인 관계에서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기원 \_ 생산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나는 먼저 뛰는, 많이 뛰는, 생각하고 뛰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나의 팀, 크게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에 없어서는 안될 베어링처럼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선 \_ 재무 Unit 사업관리 전주공장**  
**나는 포기하지 않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인정받고 인정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부산**



**김훈민 \_ 산업기계 영업 남부 직남 영업**  
**나는 차두리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1년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보다 빠른 성장으로 치고 나가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 따뜻한 봄기운을 전합니다. 사랑의 꼬마김밥 만들기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나눔 현장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고소한 참기를 냄새가 새어나온다. 이날 전주공장 임직원들과 발달장애 아동들은 함께 김밥을 만들고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에게 김밥을 건네는 푸근한 봄기운 가득한 현장을 따라가 보자.

## 웃음으로 맛을 더한 김밥 만들기

지난 3월 28일,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소속 임직원 6명과 사업관리 전주 소속 임직원 5명 그리고 이들의 가족 16명이 장애 아동들과 함께 꼬마김밥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꼬마김밥 만들기 행사에는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부모회) 발달장애 아동들도 함께했다. 전주시부모회는 교육재활, 사회문화체육 등을 통하여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단체이다.

장애 아이들과 직원 및 가족이 5개의 조를 이루어 꼬마김밥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서먹한 시간도 잠시, 서로 눈을 마주보며 해맑은 웃음을 건넸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김밥 만들기에 동참했다. 김밥 위에 김 한 장을 올리고 단무지, 우엉, 참치 등 갖가지 속 재료를 얹은 다음 김을 돌돌 마는데 그 손이 제법 아무졌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김밥을 서로 먹여주며 맛을 자랑하기도 했다. 함께한 직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아이들의 손을 도와 맛갈스러운 김밥을 만들어 냈다. 한편 옆구리가 터진 김밥을 보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잔칫집

접시에 소복이 쌓아 놓은 꼬마김밥을 나눠먹으며, 직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에 직원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직원들을 따라 나온 가족들도 스스로없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훈훈한 잔칫집을 연상케 했다.

김밥과 다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아이들은 유행하는 걸그룹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다. 아이들의 장기자랑으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 따뜻한 나눔으로 마음을 채우다

이날 세플러코리아는 아이들을 위해 체중과 키 측정 전자기계를 전달했다. 아이들은 너도나도 전자체중계 위를 오르내리며 재미있는 놀이인 듯 자신의 몸무게와 키를 잴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소속 직원들과 사업관리 전주 직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힘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사람임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불우한 이웃과 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회와 물품지원 등은 계속될 예정이다.



## + mini interview

업무지원 전주  
김재홍 과장과 딸 하은 양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루가 풍부했고, 특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뜻 깊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소외 시켜서는 안되며,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보는 아이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분주한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Tip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후원 안내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는 여느 위탁시설과는 달리 센터 내에서 학습, 사회적응, 재활 등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이곳에서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심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학령기에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후원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기금후원 물품후원 : 식품, 생필품 등 복지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 후원계좌 : 농협 1183-01-054386

(예금주 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후원문의 : 부모회/주간보호센터/지역아동센터  
063.274.0095/4 (www.judown.com)

# 동행취재 권너속으로

'세플러 동행취재'는 사보의 코너들이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생생한 그 뒷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그 첫 동행취재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을 소개하는 '세플러가 만난 사람'의 취재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호의 주인공은 요리 연구가 한복선 씨로 궁중음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식 분야의 장인입니다.



## #1

### 이겨울의 끝을 잡고

인터뷰가 진행된 한옥 카페는 북촌한옥마을의 골목 귀퉁이에 자리잡은 '복스룩스'란 카페였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더욱 평화로웠던 한옥마을의 분위기에 젖어들어 카페 한켠을 가득 채운 요리책들을 구경하는 동안 한복선 씨가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봄나물들을 한 움큼 안고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뭐 먹지?〉에 나왔던 냉이 강판장메뉴도 가능할까요?

## #2

### 봄나물처럼 상큼했던 촬영현장

한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세플러코리아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면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이내 한복선씨만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보 취재팀은 더욱더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한복선씨와의 컨셉 회의, 스냅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복으로 출근했던 저는 취재 현장의 후기를 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싱그러움 봄내음이 가득한 냉이와 달래 같은 봄나물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시원한 냉이 된장찌개와 봄나물 비빔밥이 생각나 군침이 돌기도 했습니다.



## #3

### 생기 넘치는 초록색이 좋아요

한복선 씨는 곱게 차려입은 초록색 한복처럼 생기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2시간 가까이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상큼한 채소의 향을 맡고 있자니 눈앞에 비빔밥이 동동 떠다니기도 했지만, 푸른 봄과 같은 한복선 씨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전해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한켠 벽에 붙어있던 'sweet dream'이라는 문구처럼 즐거운 취재기를 끝으로, 다음 호에는 또 새로운 코너의 촬영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완벽한 구도를 찾아야해!



focus 01

# 창원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 창원 물류센터 기공식

지난 2월 9일, 창원에서 창원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김재현 사장과 Asia Pacific CFO인 Mr. Andersson 그리고 Asia Pacific COO인 Mr. Babik 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 창원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개요

창원 3공장 내 현 위치에 창원 물류센터 신축이 이루어지며, 약 7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는 9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10월 중 물류 보관품 이전을 마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 창원 물류센터 신축의 주목적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판매에 따른 물류 보관공간 부족의 해소  
둘째, 현재 열악한 창원물류센터의 환경개선으로 보관품질을 향상 및 고객만족 실현  
셋째, 향후 생산공간의 부족 해소를 위해 현 물류센터 부지 약 9,917m<sup>2</sup>평을 생산공간으로 활용  
넷째, 물류 흐름의 개선으로 물류 원가 절감 실현  
다섯째, 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

### 현 물류센터 대비 차이점

신축되는 창원 물류센터 건물의 총 높이는 18m이며, 내부 가용 높이는 14m로 설계되었다. 물류센터 내부는 고층 랙 10m로 설치되며, 제품적재 시 사용 높이는 11m가 된다. 창고동 전면에는 입,출하 장소 및 팩킹(Packing) 장소를 설정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 바닥은 50cm 높이로 하여 상,하차 도크(Dock)에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현 창원물류센터와 비교했을 때 건축 면적은 축소 되지만 저장공간은 128%가 증가되며, 저장 능력 또한 93% 확충된다.

### 창원 물류센터 조감도 안내

현재의 창원3공장 정문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후문을 신규 설치하게 되며, 후문 경비실 또한 신축하여 물류 화물차량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게 된다. 또한 후문 경비실 인근에 화물차량 계근 시설이 설치되어 과적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물류센터 전면에는 운송차량 여러 대가 동시 상,하역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focus 02

# 각국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AP Finance)



Ms. Huang, Yanhong (Lemon) / Mr. Baum, Stefan / Mr. Andersson, Johan 세플러AP와 세플러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 / 박현성 대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AP Finance)이 한국에 동지를 틀었다. 본래 중국에 위치해 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은 중국이 AP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우리나라에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은 현재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9개국 11개 법인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파이낸셜 리포트, 수익성 분석 등 AP 지역의 사업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각국의 사업내용을 취합해 본사에 전달하고, 또 반대로 본사로 부터 오는 메시지를 각국의 사업장에 전달하기 때문에 본사와 사업장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은 각국의 사업장에 대한 개선점과 니즈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AP 지역 국가에서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남아 시장을 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이 한국에 본부를 두게 된 의의는 여기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관리팀은 세플러AP와 세플러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하고 있는 Mr. Andersson의 총괄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Mr. Andersson은 "업무 특성상 팀원이 스웨덴, 독일, 중국, 한국 등 다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원 다섯 명으로 아직은 소규모이나,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인재를 양성해 점차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

역 사업관리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원 차장 (AP RHQ 파견근무)

서울사무소

2015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



1월 1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15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가 개최되었다. AP인더스트리얼 김용진 사장과 세플러코리아 CFO인 Mr. Andersson 포함한 임직원들과 대리점 대표자 약 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리점 성과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15년도 유통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찬이 진행된 후에는 대리점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의 판매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기계부문 워크숍



2월 6일부터 2일간 한화 리조트 대천에서 2015년 산업기계부문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기계부문 김용진 사장이 참석하여 2015년 그룹 경영진의 비전 및 산업기계 부문의 주요 목표에 대해 발표하였고, 각 섹터별 주요 추진 목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강연자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법무의 소병웅 선임매니저는 그룹 내의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리고 부서별 임직원 모두가 2015년 영업 목표 달성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Strategy Dialogue kick-off meeting



3월 4일, 서울사무소에서 Strategy Dialogue Kick-off 미팅이 개최되었다. 이번 미팅에는 서울사무소 및 지방 사업장의 임원 및 매니저가 약 30여 명 참석하였다. 지방 사업장의 여건으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전화 미팅을 통해 미팅에 참가하였고, 미팅 간에는 "Mobility for tomorrow"를 기반으로 2020년의 전략적 로드맵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5년 서플라이어 데이



3월 11일, 부산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2015년 서플라이어 데이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AP 구매 부사장인 Mr. Micah Shepard와 Ms. Henriette Solomaier도 행사에 함께 참석하였다. 세플러코리아의 경영정책, 생산, 품질 및 구매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업체 관계의 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공급업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올해 수상업체 부상은 세플러 차이나 공장 투어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세플러코리아 및 공급업체 60개사에서 초청된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축구동호회 1/4분기 모임



3월 19일, 서울사무소 축구동호회의 15년도 1분기 모임이 열렸다. 축구 동호회는 서울사무소 동호회 중에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동호회 중 하나로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동호회원들은 따뜻한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2시간가량 운동을 즐긴 뒤,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고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서울사무소 산악회 모임



3월 21일, 서울사무소 산악회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에 올랐다. 주로 도봉산, 북한산 등지를 주로 등반하다가 모처럼 외곽으로의 산길에 오른 이번 산행에는 Automotive 부문의 근무자들이 모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차기 등산모임은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춘천 강촌의 삼악산에 오를 예정이다.

세플러코리아 협력사 오찬 모임



3월 26일, 서울사무소 부근에서 2015년 구매 협력업체 오찬 모임 행사가 있었다. 본 오찬 모임은 일종의 협력사와의 간담회로 주요 구매 협력업체와의 협력 증진 및 교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오찬 모임은 총 10회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주, 창원지역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총 53개의 협력사가 본 오찬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대학생봉사단 EVERGREEN 3기 발대식

3월 27일,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창원, 전주에서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 3기의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각 사업장별 담당자가 회사 소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전달하고 봉사단원들의 자기소개 시간도 가졌다.

이번 3기에는 서울 20명, 전주 및 창원에서 각 10명이 선발되었다. 서울은 밝은세상 만들기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창원은 지적장애인 동행 벽화봉사, 전주는 저소득층 자녀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봉사활동은 매월 1회,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직원 봉사활동

2014년에 시작된 서울사무소 부서단위 봉사활동이 지난 2월 27일 범부, 수급팀의 참가를 통해 2015년의 첫출발을 알렸다. 세플러코리아는 지난 2014년, 꾸준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종로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3월 27일에는 사업관리와 중부 직남영업팀에서 배식봉사에 참가하였고, 오는 4월 24일에는 인사팀이 배식 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5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3월 25일, 2015년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플러코리아는 매년 우수한 지원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뿐만 아니라 KOTRA에서 주관하는 채용박람회에도 꾸준히 참가해오고 있다. 서

울에서 시작되어 창원, 광주, 울산,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약 160여 개의 협력사가 참가하였으며, 세플러코리아에 관심 있는 많은 구직자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창원공장

#### 세플러코리아 노동조합 제52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



2월 11일, 창원공장 연수실에서 제52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는 모범 조합원 포상, 대의원 점명, 회순 통과, 의안 심의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제17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는 현 장준영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 1st Asia-Pacific Quality Conference

2월 3일~4일 AP Q-컨퍼런스가 창원 공장 연수실에서 개최되었다. AP 각 지역별 품질 대표자 20명은 각 지역별 품질 현황, AP 지역의 SWOT 분석, Fit for Quality 전략 및 주요 이슈 사항을 협의하였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의 품질 현황, 베트남 공장의 Q-Dojo 시스템, 2015년에 변경되는 ISO 9001 요건 및 2014년 그룹 내부 감사에서 제시된 주요 지적 사항을 공유하였다.

#### 환경안전 보고회



2월 25일, 창원공장 1층 강당에서 환경안전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환경안전 주요 이슈 안내, MU별 개선 사례 발표,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환절기 개인 건강에 유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

#### Monthly Quality Report

3월 18일, 창원공장 1층 강당에서 Monthly Quality Report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주요 품질문제에 대한 개선 및 활동 방향과 세그먼트별 주요 개선사례 발표로 이어졌으며, 우수한 품질 경쟁력은 시장에 대한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 2회 AP MCM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창원 풀만호텔에서 제2회 Asia Pacific MCM(Management Council Meeting)이 개최되었다. MCM은 각 리전의 주요 멤버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역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본 행사에서 지역 CEO인 Mr. Shick은 AP 지역 내 두 중점 고객인 현대 및 도요타에 초점을 맞춘 전략에 대해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간에는 각 지역의 주요 멤버들 간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팀빌딩 행사도 진행 되었으며, AP 지역의 비전 및 미션 그리고 중점 영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안산공장

#### 산악 동호회 가족 등반

1월 24일, 새해를 맞이하여 안산공장 등산 동호회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강원도 백덕산에 올랐다. 안산 공장 산악 동호회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동반 새해 등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덕산 정상에 올라 새해의 소원도 함께 빌었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노동조합 간부 단합등반 실시



3월 21일, 안산공장 노동조합에서는 간부 단합등반을 실시하였다. 수리산역 방향에서 슬기봉 주변을 둘러서 수암봉까지 3시간 코스로 간부 체력 단련을 하였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의지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2015년 성실납세기업 선정



3월 23일, 경기도는 지난 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시·군에

서 추천받은 347명의 개인과 기업 등 후보를 대상으로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의 성실납세자 343명을 선정했다. 2015년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된 안산공장은 앞으로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를 비롯하여 각종 기업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전주공장

#### 사원자녀 영어수업 입학식



3월 15일, 사원자녀 영어수업의 입학식이 전주 여학원에서 열렸다. 사원자녀 영어수업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원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으로, 올해 입학식에는 19명의 사원자녀들이 참석하였다. 사원자녀들에게 우수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노동조합 전주지부 창립기념일 행사



제 26년차 노동조합 전주지부 창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행사 및 산행을 건지산에서 가졌다. 약 1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산행을 하면서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휠베어링 워크숍



3월 24일부터 4일간 휠베어링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전주 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각지의 세플러 직원 11명이 전주공장을 방문하여 휠베어링 공정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 구 소

Global Benchmarking Project를 위한 Basic Training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세플러 테크놀로지사의 Advanced Bearing Analysis 팀 소속의 Mr. Stefan Noeth 외 1명은 창원 연구소를 방문하여 당 소 RPA(Returned Part Analysis)팀과 함께 치수측정, 재료분석,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Bench Marking Standard의 이해를 위한 Basic Training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그룹 내 벤치마킹 정보 공유하기 위한 Global Bench Marking Project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GPS Rollout 설명회



3월 2일부터 3일간, Design Guide Lines 팀 소속의 Mr. Gatersleben, Stefan 외 1명이 한국을 내방하여 서울사무소 및 공장 사업장을 방문하고 ISO와 DIN과 같은 국제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설계 상의 치수, 형상 그리고 거칠기의 표준인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GPS)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도면의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던 이번 방문을 통해 고객사 및 세플러 그룹 내의 기하공차 표준의 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4. 12

일반구매 정현철 | 14일 장인 회갑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이복순 | 22일 부친상

2015. 01

정보시스템 정해경 | 10일 시무 회갑

HR서비스 권미영 | 26일 모친 회갑

해외파견 정성호 | 27일 장모상

2015. 02

산업기계 사업기획 김정훈 | 7일 본인 결혼

직접자재구매 송유훈 | 21일 장인 회갑

클러치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기준형 | 24일 모친 회갑

2015. 03

HR Development 배영서 | 4일 장모 회갑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에너지 & 중공업 이지형 | 28일 자녀 출산

안산공장

2014. 11

엔진부품 세그먼트 방지훈 | 22일 모친 회갑

2014. 12

엔진부품 세그먼트 권오석 | 20일 모친상

엔진부품 세그먼트 안철성 | 24일 조모상

품질보증 안산 이홍훈 | 27일 본인 결혼

2015. 01

품질보증 안산 권빛나 | 1일 부친 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서재국 | 1일 장모 회갑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손창현 | 3일 부친 회갑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채선영 | 9일 장인 철순

엔진부품 세그먼트 신성용 | 10일 장인 철순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성규 | 10일 부친 회갑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김성희 | 10일 부친상

생산계획 엔진부품 세그먼트 장판철 | 18일 장인 회갑

2015. 02

품질보증 안산 권빛나 | 2일 시무 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조남형 | 10일 모친 회갑

품질보증 안산 권빛나 | 13일 시무 회갑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인구 | 24일 장인 철순

2015. 03

엔진부품 세그먼트 신성용 | 2일 장모 회갑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장해수 | 4일 부친상

2015. 04

공정기술 안산 이기수 | 7일 장인 회갑

창원공장

2014. 12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민수 | 20일 본인 결혼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한창석 | 26일 모친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경윤 | 26일

장인 회갑 2015. 01

선삭 세그먼트 이경섭 | 1일 장모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배수용 | 1일 모친 회갑

업무지원 창원 환경안전 원준길 | 7일 모친 회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백상근 | 13일 부친상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김진호 | 16일 모친 회갑

선삭 세그먼트 이준형 | 19일 부친상

품질보증 창원 이범주 | 19일 장인 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기환 | 23일 장모 회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신명구 | 27일 조모상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성승현 | 29일 부친 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준호 | 29일 장인 회갑

2015. 02

선삭 세그먼트 김철용 | 1일 자녀 결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장호근 | 2일 장인 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기득 | 6일 장모 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동원 | 6일 장모 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인구 | 7일 장모상

테이퍼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 백주훈 | 10일 장모 회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강명수 | 10일 자녀 출산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형상 | 13일 자녀 출산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김명대 | 18일

장인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석상준 | 20일 부친 회갑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 박지희 | 24일 부친 회갑

2015. 03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광현 | 6일 장모 회갑

선삭 세그먼트 박성기 | 9일 모친 회갑

단조 세그먼트 김대현 | 20일 부친 회갑

전주공장

2015. 02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중식 | 3일 장모상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승수 | 17일 자녀 출산



연구소

2015. 01

제품기술팀 서민우 | 7일 조부상

제품기술팀 김정훈 | 17일 모친 회갑

전용기개발팀 강진업 | 20일 장인상

2015. 03

제품기술팀 이창현 | 8일 본인 결혼

제품기술팀 강원환 | 20일 모친 회갑



제품기술팀 강원환 | 20일 모친 회갑